국토교통부	보	도 자 료	<b>હો</b> માર્મ પાંચુ-શક્
	배포일시	<b>2020. 9. 25.(금)</b> 총 <b>3</b> 매(본문3)	पारंग्यम
담당 모빌리티정책과 <b>부서</b>	담 당 자 과장 박준상, 팀장 박효철, 사무관 송혜연, 주무관 최상육·☎ (044) 201-3817, 4770, 3813, 4755		
보도일시	2020년 9월 28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9. 27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새로운 브랜드택시 곧 출시된다.

- 나비콜, 타다, 반반택시 등 3개 브랜드 택시 신규면허 -- 운영중인 브랜드 택시 18,615대로 증가 -
- □ 플랫폼과 택시가 결합한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 시너지를 이루면서 전국적으로 브랜드택시가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.
- 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최근 ㈜나비콜, ㈜VCNC, ㈜코나투스 등 3곳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(이하 '운송가맹사업') 신규 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다.
  - 이에 따라 현재 운송가맹사업(이하 '운송가맹사업')의 면허를 받은 업체는 **총 6곳**이다.
- □ 이번 면허로 3가지 브랜드택시가 새롭게 출시된다. ㈜나비콜은 전화와 플랫폼을 통해 호출하는 나비콜을, ㈜VCNC는 '타다 라이트'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고, ㈜코나투스는 '반반택시' 중개서비스에서 '반반택시 그린' 가맹서비스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한다.
- □ 이와 함께 ㈜디지티모빌리티는 대구에서 '카카오T블루'를 운영했던 경험을 살려 경남 포항과 경산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다.

## <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별 사업구역>

업 체 명	브랜드택시명	면허일자	사 업 구 역
㈜케이엠솔루션	카카오T블루	′19.3.20.	('19년) 서울, 경기(성남) ('20년 추가) 대전, 울산, 광주, 인천, 경기(남양주, 하남, 구리, 의정부, 용인, 양주, 안양·과천·군포·의왕, 안산, 광명), 충북(청주), 충남(천안), 전북(전주), 전남(순천, 목포)
㈜케이에스티모빌리티	마카롱택시	′19.6.13.	( <b>'19년</b> ) 대전, 경북(김천) (' <b>20년 추가</b> ) 서울, 세종, 대구, 울산, 제주, 경기(오산·화성, 수원, 부천)
㈜나비콜	나비콜	′20.8.31.	서울, 대구
㈜VCNC	타다 라이트	′20.9.28.	서울, 부산
㈜코나투스	반반택시 그린	′20.9.28.	경기(수원), 전북(전주)
㈜디지티모빌리티	카카오T블루	′20.9.28.	대구, 경남(포항, 경산) ※ 대구광역시장 면허(19.11.1.) 후 사업구역 확대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면허 취득).

- □ 국토교통부는 그간 가맹형 택시 활성화를 위해 가맹사업 차량보유 면허기준을 '20.4월에 4천대에서 5백대로 완화하고, 규제 유예제도 (규제 샌드박스)를 선제적으로 적용\*하는 등 플랫폼 기반 택시서비스의 혁신을 지원해왔다.
  - \* (반반택시) 자발적 동승할인 / (카카오, 마카롱 등 가맹택시) 앱미터기 기반 탄력요금제 등
- □ 이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의 서비스지역이 지속 확대되고, 운영중인 브랜드택시는 '20.8월말 기준 18,615대로써 '19년말 대비 7.8배 증가 하였다.
- □ 운송가맹형 브랜드택시는 정보통신기술(ICT)과 전통적 택시의 결합을 통해 데이터 기반 차량배차, 통합관제, 서비스평가 등이 가능해짐으로써 택시업계에게는 효율적 경영관리 및 수입증가 효과를 제공하고, 국민들은 스마트폰을 통한 편리한 택시 예약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.

- 특히 그동안 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던 **승차거부, 불친절** 문제 해소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.
- □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"플랫폼과 택시가 결합한 운송 가맹사업은 모빌리티 혁신서비스로, 이번 면허로 인해 국민의 교통서비스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졌다"면서,
  - "모빌리티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, 브랜드택시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여 서비스 개선이 유도되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, 규제 개선도 지속해나가겠다."라고 말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모빌 리티정책과 송혜연 사무관(☎ 044-201-381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